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 출마 포부서

1978년 KLPGA가 창립된 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초창기 강춘자, 한명현, 구옥희 프로님을 시작으로 박세리, 김미현 그리고 지금은 박인비, 유소연, 최혜진 프로 등이 KLPGA를 대표하며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 여자골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김상열 회장님이 부임하신 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내실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국내외 무대에서 KLPGA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침에 따라 국내 정규투어는 자생력을 가지고서 매년 상금액을 경신하며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김상열 회장님이 부임하신 후 가장 크게 변화, 발전된 곳은 드림투어와 챔피언스투어임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와 함께 회원에 대한 복지후생 확대, 글로벌투어로의 정착 등은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KLPGA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KLPGA는 세계 넘버원 투어조직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KLPGA 투어 전체 총상금이 300억원을 넘어섰고 매년 해외에서 개최되는 KLPGA 대회는 늘어나고 있어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활약 아래 골프팬들의 응원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이만큼 성장했기에 한순간 멈칫하면 뒤쳐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협회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자생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중계권, KLPGA 회원 골프장, 골프단체와의 협력사업 그리고 선수들의 재교육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골프팬들과 기업의 관심으로 움직이는 스포츠협회로서 협회는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협회 행정이 투명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협회 임원이면 어느 누구 보다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과 함께 내부 감사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6일

성 명 : 구 민 지

